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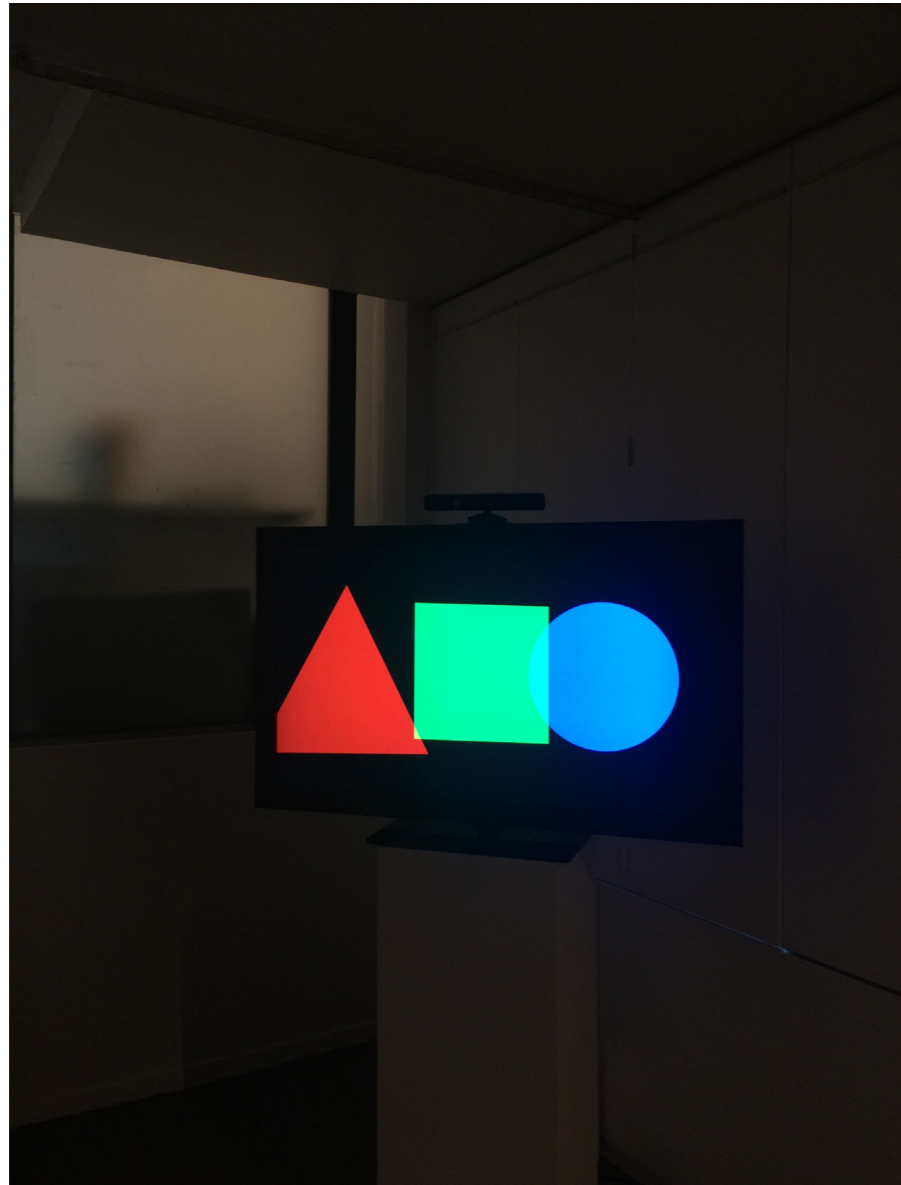
노치웁

Nho Chiwook

JE_EST_UN_AUTRE-01, 나는 타자(他者)다;
인터랙티브 실시간 모자이크 비디오 설치 모니터, 웹카메라, 컴퓨터, 프로젝트, 프로세싱으로 프로그래밍, 2015

기술 위에 쌓은 타인에의 배려

윤규홍 _ 갤러리분도 아트디렉터



INTER-SUBJECTS 상호 주관들

인터랙티브 설치, 모니터, 키넥트 센서, 컴퓨터, 프로세싱으로 프로그램, 2015

]-남들이 모여서 나를 이룬다. 내 안에는 수많은 딴 사람들이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명제를 시각 작품으로 만드는 시도는 꽤 있어왔다. 그리고 내 취향은 이런 작업에 맞춰져 있다.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여러 작가나 작품은 저마다 완성도, 생각의 깊이, 독창성에서 수준의 높낮이가 있을 거다. 그래도 나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좋아한다. 평문을 쓰는 입장에서 이런 태도가 작가나 독자에게 마냥 이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 짧은 글은 미디어아티스트 노치옥의 작품을 먼저 봤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남기는 체험기다.

노치옥 작가의 미술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 편안함은 딴 뜻이 아니라 이리저리 흠어져 있는 존재를 정리 정돈하듯 일정한 틀 안에 담아두는 쾌적함이다. 이런 미적 쾌를 위하여 작가는 컴퓨터와 광학 기기를 예술에 적용한다. 이 글을 쓰는 내가 프리뷰 단계에서 본 작업은 <JE EST UN AUTRE>과 <INTER-SUBJECT>다. 작품은 둘 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겉으로는 감각적인 면에 기대면서도, 그 속에는 개념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작품에 담긴 작가의 메시지를 깨닫는데 특별한 지식이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품을 보는 동안 눈앞에 구현되는 몇 가지 효과에 관해 그 기술 원리나 사회적 의미까지 속속들이 알 필요도 없다.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된다. 우리는 이 미디어아트를 즐기면 된다. 우리가 진공청소기나 에어컨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잘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작가 노치옥을 내가 벌이는 프로젝트에 합류시킬 생각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관객에게 으스스대듯 자신이 쌓아올린 세계관을 펼쳐놓는다. 하지만 노치옥은 지적 속물주의에 빠지지 않고, 시각적인 경탄 그 자체를 보는 이들에게 전한다. 그 점이 지금 나의 라인업에 그가 들어와야 할 이유다.

가장 근작인 <JE EST UN AUTRE>에 쓰인 소재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작품 앞으로 다가온 사람들을 웹캠이 자동으로 촬영하여 그 형태가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면, 그건 CC tv나 다름 바 없어 예술이 아닌데, 화면에 잡힌 형태 안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의 얼굴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얼굴 사진이 모두 이백선일곱 장이라고 하는데, 25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다. 전 세계 나라 숫자도 200개 남짓이니까 아니고, 다만 피부색에 따라 음영의 윤곽 표현이 가능한 최적의 퍼즐 개수일 것 같다. 작품명이 우리말로 '나는 타인이다'니까, 제목만 알더라도 메시지는 쉽게 다가온다.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다시 보는 영화 <러브 액추얼리>의 마지막 씬처럼 여러 퍼스널리티가 점묘화법처럼 전체를 구성하는 이미지는 작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알레고리를 담을 수 있다. 이를테면 하나의 페르소나 속에 어떤 독재국가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을 담는 일, 혹은 그 속에 작가에게 영향을 끼친 동시대 미술가들의 얼굴을 담는 일은 완전히 다른 맥락을 만든다. 짐작컨대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부터 미술관 전시로 이어지는 산출물은 그것보다 '위 아 더 월드' 식의 보편적인 가치를 넣은 게 작가의 선택이었고, 그것은 현명했다.

또 다른 작품 <INTER-SUBJECT>는 이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알아차린 다음, 초록색 사각형과 빨간 사각형과 파란 동그라미를 화면에 등장시킨다. 관객은 자기가 움직이고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세 가지 도형의 하나로 매겨지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을 때엔 길쭉한 형태의 다른 모양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나같이 덩치 큰 남자는 커다란 사각형으로 처리하는 게 당연하지만, 작품은 특성에 따른 차별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작가는 우리를 인체가 가진 정신적인 요소와 기능적 분화를 깔꿈이 지워버리고 단지 색과 형태의 세팅된 무작위 속에 집어넣는다. 불쾌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동그라미로 대접받고 싶는데 삼각으로 나와서 좋을 건 또 뭐냐. 다양한 인

격이 표준화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처리되는 건 일상다반사다. 뭐 작가가 예컨대 현대인들이 보여주는 취향의 물개성이나 유행의 쓸림 현상을 꼬집으려 했다면 또 모를 일이긴 하다. 복잡하게 생각하자면 끝도 없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도 있다.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노치옥의 미디어아트에 관하여 훨씬 장대하고 진지하게 파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그의 작업은 과잉담론을 찾아볼 수 없고, 우렐 미소 짓게 한다. 시간만 된다면 나는 미술관 도슨트가 되어서 노치옥의 이 작품들 앞에서 관람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다. 양손에 숫자 세는 카운트 기계를 쥐고, 한 손에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머금은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고, 다른 한 손엔 무료정하거나 쟁그리는 사람들 수를 재는 일 말이다. 결과는 어떨까? 순수하고 동시에 정교한 이 작품을 보면서 나는 작가가 여러 면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꼈다. 여기, 쌀쌀맞지 않고 인간적인 매체 예술이 그 배려심의 결과다.



TEMPO DE LA VIE 삶의 템포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 7개의 비디오 시퀀스, 아이패드,
iOS, 디렉터로 프로그램, 2017



GREEN CITY PARIS 녹색도시파리
인터랙티브 실시간 모자이크 비디오 설치, 모니터, 웹카메라, 전구,
컴퓨터, 프로세싱으로 프로그램, 2017

MAQUETTE / TEMPO 삶의 템포
시각형, 작품 모형, 홀,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 10인치 SURFACE,
디렉터로 프로그램, 2018

학력

- 2018 프랑스 파리 8대학, "예술의 미학, 학문과 기술"학과, 디지털 이미지, 박사과정 수료
- 2007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 예술학과, 뉴 미디어, 연구석사 졸업
- 2005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 예술학과, 뉴 미디어, 석사 졸업
- 2002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 예술학과, 뉴 미디어, 학사 졸업
- 2000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 학사 졸업

개인전

- 2018 < 점, 선, 면 + 사람 > 스페이스바, 서울
- 2017 < JE EST UN AUTRE > 갤러리 도향리, 파리, 프랑스
- 2014 < 점, 선, 면 그리고 참여관객 > 갤러리 아틀리에 구스타프, 파리, 프랑스
- 2008 < 디자-아트 > 아틀리에 비스, 파리, 프랑스
- 2008 < 광장 > 라갤러리, 파리, 프랑스

단체전

- 2017 < Construction Time Again > 바스티유 디자인 센터, 파리, 프랑스
< 가상의 문 > 갤러리 빌라 데 자르, 파리, 프랑스
- 2015 < 감각 교류 > 국제 예술 공동체 갤러리, 파리, 프랑스
- 2014 < 나는 타자가 아프다 > 국제 예술 공동체 갤러리, 파리, 프랑스
< 3회 예술주간 >, < 멀티 이미지 > 파리 8대학 갤러리, 생드니, 프랑스
< 아트-모니#2 > 주미 로스엔젤레스 한국문화원, 로스엔젤레스, 미국
- 2013 < 아트-모니 > 라 파브리끄 갤러리, 이브리 슈흐 센느, 프랑스
< 가흐던 (p)아티 (garden (p)arty) > 이마즈 뽀싸즈, 안시, 프랑스
< 오디세이 2 > 주미 워싱턴 한국문화원, 워싱턴 디시, 미국
< 30회 재불청년작가회 특별전 > 국제 예술 공동체 갤러리, 파리, 프랑스
- 2012 < 파리 - 서울 아티스트 소나무 > 아라 아트 갤러리, 서울
< 연결선 > 갤러리 89, 파리, 프랑스
< 놀자 > 3회 국제상상대학전, 스페이스 라디오 엠, 서울
- 2011 < 현대미술 한국작가 특별전 > 삐띠에 샬페트리에흐 썽-누이 성당, 파리, 프랑스
< 국제 디지털 디자인 초대전 > 제주 국제 컨베이션 센터, 제주, 대한민국
- 2010 < 국제 디지털 디자인 초대전 > 테쥬카야마 대학, 나라시, 일본
- 2007 < 샹게이 페스티벌 > 샹게이시 시청 홀, 샹게이, 프랑스
< 파리 - 뉴욕 > 월드 스페이스 갤러리, 뉴욕, 미국
- 2006 < 동 - 서 > 동서양 문화 교류전, 국제 예술 공동체 갤러리, 파리, 프랑스
< 꿈같이... > 갤러리 밀 블라프, 파리, 프랑스
- 2005 < 22회 재불청년작가전 > 주불 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 2004 < 놀이 할 수 있는 > 국립장식예술학교 (아르데코), 파리, 프랑스
< 1회 부산 디지털 국제 메일 아트 페스티벌 > 부산
< 2회 시쎬 국제 비엔날레 초대전 > 시쎬, 프랑스

EDUCATION

- 2018 Doctor Process in Education on "Aesthetics, Science and Technology of Arts" at Univerty Paris 8, France
- 2007 Master Research in Education on "Arts-Plastics", New Media Art at a Graduate of University Paris 8, France
- 2005 Master in Education on "Arts-Plastics", New Media Art at a Graduate of University Paris 8, France
- 2002 Bachelor in Education on "Arts-Plastics" at a Graduate of University Paris 8, France
- 2000 Bachelor in Education on "Fine Arts" at a Graduate of Dankook University, Korea

SOLO SHOW

- 2018 "Poin, Line, Plan + Man", SpaceBA, Seoul
- 2017 "JE EST UN AUTRE", Galerie Dohyang Lee, Paris, France
- 2014 "Point, Ligne, Plan & Spectacteur", Galerie Atelier Gustave, Paris, France
- 2008 "DIGI-ART", Atelier BIS, Paris, France
- 2008 "The Square", Lagalerie, Paris, France

GROUP SHOW (SELECTED)

- 2017 "Construction Time Again", Bastille Design Center, Paris, France
"Virtual Gate", Galerie Ville A des Arts, Paris, France
- 2015 "Sens croisés",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 2014 "J'ai mal à l'autre",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3th La Semaine des Arts", "Multi-Image", University of Paris 8 Vincennes - Saint-Denis, Saint-Denis, France
"ART'MONIE #2",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USA
- 2013 "ART'MONIE", Artistes Sonamou 2013, La Fabrique Gallery, Ivry-sur-Seine, France
"garden (p)arty", Images passages, Annecy, France
"ODYSSEY II", Korean Cultural Center, Washington DC, USA
"The 30th Exposition special of Young Artists Koreans",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 2012 "Paris - Seoul Artistes Sonamou", Ara Art Gallery, Seoul, Korea
"Le trait d'union", Galerie 89 - Viaduc des Arts, Paris, France
"Let's Play", "the 3rd International University in Imagination (IU)", Space Radio M, Seoul, Korea
- 2011 "Printemps Jaillissant", La Chapelle Saint-Louis de la Salpêtrière, Paris, France
"17th, KoCon 2011",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South Korea
"INTIME/EXTIME", "The 28th Exhibition of Young Artists Koreans", Korean Cultural Center, Paris
- 2010 "ICCC 2010", Tezukayama University, Nara, Japon
- 2007 "PARIS - NEW YORK", World Space Gallery, New York, USA
"Festival Champcueil", City Hall, Champcueil City, France
- 2006 "ORI-OCCID", Cité International of Arts, Paris, France
"Comme un rêve...", Gallery Mille Plateaux, Paris, France
- 2005 "The 22nd Exhibition of Young Artists Koreans", Korean Cultural Center, Paris, France
- 2004 "Jouabl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1st Digital internation mail art festival Busan", Cultural Center in Busan, Busan, Korea
"Le Temps Géographique", "2nd Biennal international of Chizé", City of Chizé, Chizé, France